

협회 소식

2007 주택 건설인 송년의 밤



협회는 지난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신훈 회장을 비롯한 윤오수 상근부회장, 협회 임원과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박성표 사장(대한주택보증), 등 유관기관 기관장, 회원사 임직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건설인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 회장은 "2007 주택 시장은 분양가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수요를 위축시키는 양도세 증과, 담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새로운 청약 가점제 등의 시행으로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이러한 국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에서는 우리 주택 건설 기술력을 인정받고, 높은 성과를 이뤄낸 주택 건설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주거안정을 이루고, 보다 나은 주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 업계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의 이름을 세계무대에서 널리 떨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혁신 노력과 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 주택 업계에는 많은 어려운 난관이 놓여 있으나 지난 IMF의 위기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라며 "회원의 성장과 더불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말로 송년사를 맺었다.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2007년 12월 11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한화건설 상무)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차 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회에 상정 중인 하자 여

부 판정과 분쟁을 조정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과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의 동별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고했다. 또한 협회는 운영홍보위원들에게 '주택·부동산 규제 개혁 과제 정책 건의서' 발간과 관련해 차기 정부 인수위에 건의할 주택 사업 관련 정책 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알림



신구건설(대표이사 김성규)이 2007년 12월 1일자로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윤오수 상근부회장은 2007년 12월 12일, 협회 부회장실에서 신구건설에 회원증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신구건설은 1985년 대방건축으로 출발해 1987년부터 주택 사업을 시작했으며, 자본금은 70억 원이다. 이로써 우리협회 회원사는 79개 사로 늘었다.

회사 소식

대우건설, 신임 사장에 서종욱 씨



대우건설 신임 사장에 서종욱 국내영업본부장이 선임됐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서종욱 국내 영업본부장을 대우건설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종욱 신임 사장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주택사업담당 이사, 관리지원실장, 국내 영업본부장을 거쳐 이번에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박창규 현 대우건설 사장은 대우건설 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호건설, 충남 태안 지역 기름 유출 복구 봉사 활동 실시



금호건설(대표이사 이연구 사장)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지역 백리포에서 기름 제거 자원 봉사 활동에 나섰다.

2007년 12월 15~19일까지 임직원 300명이 참여해 기름 제거 봉사 활동을 했으며, 기름 제거에 필요한 마스크,

방제복 흡착포 등 피해 복구 작업 물품을 기증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기름 제거에 필요한 작업 물품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업 물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 두산건설 · 롯데건설 ·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공정 거래 협약' 체결**



현대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 · 롯데건설 · 두산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7년 12월 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

중소 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대·중소 기업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LG전자·삼성물산·KT·포스코건설·GS건설 등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5개 건설사들은 ▲하도급 위탁 및 변경 시 서면 계약 의무화 ▲하도급 대금 결정 방식의 객관성 보장 ▲협력 업체 등록·취소 기준 등의 투명성 보장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 심의 기구 설치 등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키로 했다. 또한 대·중소 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자금 지원 방법을 확대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및 지급 기한 축소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협력 업체 임직원의 기술 교육 지원 및 국내외 우수 사례 견학 등 인력 및 교육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 공동 개발 및 개발 지원 확대 등 기술 지원과 관련된 상생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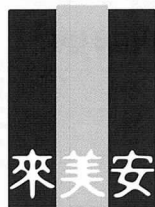
대림산업, '사랑나눔 김치나눔' 행사



'Orange Day' 로 고객 가치를 위해 고객 만족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대림산업(대표이사 김종인)이 프로슈머와 함께 '사랑나눔 김치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대림산업의 5대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1월 4일, e-편한세상에서 운영 중인 주부 자문 위원과 직원들 약 70여 명이 용인 백암면에 위치한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사랑나눔, 김치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을 사회 봉사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나눔 활동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고, 행사에 참여한 주부 자문위원 권오정 씨는 "오늘 함께한 모두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됐던 보람된 하루였다"고 전했다. 정성껏 만들어진 김치는 무의탁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연꽃마을 요양원과 회사 결연 보육원, 단지 내 노인정에 골고루 전달됐다.

삼성물산, '래미안' 브랜드 새 단장

삼성물산(사장 이상대) 건설부문이 래미안의 '고급·세련' 이미지를 강화하고 광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래미안 BI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BI는 래미안 고유의 이미지를 계승, 시대에 맞는 감성적인 측면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형태와 서체를 수정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자연을 상징하는 그린 컬러의 사각형과 인간과 기술



래미안

을 상징하는 웜그레이빗 사각형 사이의 폭을 없애 자연·사람·기술이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린과 그레이 컬러를 입체적이면서도 질게 표현해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강조했으며, 높아진 사각형은 래미안이 지향하는 성장과 발전 의지를 표현했다. 과거와 미래, 현대와 전통을 동시에 상징하는 '래미안(來美安)' 한자는 현대적인 서체로 개발돼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삼성건설 마케팅실 김도훈 실장은 "입체적인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느낌을 향상시켰으며, 부드러운 곡선의 도입으로 래미안의 고객 지향적 의지와 고객의 자부심을 높여려는 브랜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경주타워 · 복합문화센터'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최우수상 수상**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완공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의 랜드마크인 '경주타워'와 '복합문화센터'가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후원하는 '제3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주타워와 복합문화센터는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상징 건축물로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천년의 도약에 필요한 비전을 담아, 현대건설이 2004년 12월에 착공해 지난 2007년 8월에 완공됐다.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상징 건축물은 주변 지역과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서 한국적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창적 문화를 창조한 신라만의 감흥과 창조성을 예술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타워는 82m의 높이에 2개층 전망대로 조성됐으며, 신라 '천년의 빛'을 담아내기 위해 천년 역사의 상징물인 황룡사 9층 목탑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화성산업, 50주년 엠블럼 선정

화성산업(대표이사 이인중)이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모한 '창업 50주년 엠블럼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작, 우수작 각각 1작품씩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총 30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는 각각 상장 과 상품 200만 원 및 100만 원을 수여한다.



SK건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SK건설(대표이사 유용석)이 2007년 12월 15일, 관악구 일대 낙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 6동 및 10동 무허가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13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유용석 SK건설 사장을 비롯, 서울 고객센터 직원과 임직원 자녀로 구성된 자원 봉사단이 참여해 한 가정당 300장씩 총 39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